

2 종합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22.8:1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최종 22.8:1로 마감됐다. 서울캠은 25.2:1, 국제캠은 20.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학년도 서울캠은 26.9:1 국제캠은 20.4:1로, 총 23.9: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형은 지난 학년도와 동일하게 ‘논술우수자’ 전형이다. 총 474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가운데, 총 31,575명의 학

생이 지원했다. 서울캠에선 한의예과(인문)가 520:1, 국제캠에선 체육학과가 133:1로 모집 단위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논술우수자 전형과 지역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서 한국사 5등급 이내의 성적을 요구했지만, 올해부터 한국사 성적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수시 모집 전형에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한다. 지난해의 경우 실기우수자전형(체육)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됐을 때, 위원회

심의 감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든 전형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된 경우, 각 호수(제1~9호)에 따라 해당 항목 전형 총점(만점)에서 감점 처리한다. 모집 단위 또한 개편됐다. 기계공학과의 경우 올해부터 기계공학부 체제로 선발해 전공 선택 시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중 학생 본인이 입학 후 선택할 수 있다.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는 경영회계계열로 입괄 선발해 입학 후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체험과 교류로 물든 동아리 박람회 ‘마인쿠래프트’

【서울】지난 3일부터 이틀간 청운관 앞마당에서 동아리 박람회 ‘마인쿠래프트’가 열렸다. 총 35개 동아리가 참여해 스탬프판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형 부스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양 캠퍼스 교류 행사인 ‘설국교류전’과 연계돼 참가자들이 교류전에 참가해도 동아리 박람회 추가 스탬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서현, 이수연 기자)

1면에서 계속 →

지원금은 입금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자치 기구 측에서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행 세칙상으로는, 학생회비와 달리 제휴 수익금에 대한 결산 의무는 없다. 국제캠 재정운용세칙 제5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자치회비, 학생회비, 특수목적비, 기타 수익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휴 수익금에 대한 정의와 사용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전 회장이 제휴 수익금을 개인 계좌에서 사용했어도, 이를 알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이유다.

현재까지 통일된 지침의 부재로 각 단과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운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과대학 학생회는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 계좌로 이관시키는 대신 별도의 모임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장호재(건축학 2018)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와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어서 오히려 혼용하는 것이 더 위험해 보였

다”며 “OT 명찰 구매, 안전 지도 용품 등 사용 목적을 승인한 곳에 한정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캠도 마찬가지다. 서울캠 재정운용세칙에서 재원을 다룬 제2조에는 ‘본회의 재정은 교비, 학생회비, 자치회비로 구분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자치회비 외 모든 수익금을 법인 명의 학생회비 계좌에 포함하고 있는 문과대학 학생회의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제휴 수익금과 학생회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재정 운용 차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최근 대부분 단과대 학생회는 이러한 제휴 수익금을 학생회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제1차 중앙재정운용위원회 재정부담운용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총 학생회를 포함해 여러 단과대(예대, 외대, 생대, 응대, 국제대, 공대, 소응대) 학생회 대표자들은 지원금의 성

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 금액을 학생회 내부 발전지원금이 아닌 공적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지원금 액수, 비밀유지조항 동종 업계 간 경쟁 방지 목적

제휴 수익금 관리가 베일에 둘러싸인 또 다른 원인은 ‘비밀 유지 조항’이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계약 시 지원금 액수에 대한 발설을 막기 위해 넣는 조항이다. BGN 밝은눈안과 제휴 담당자는 “어느 기업이나 계약을 할 때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며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회사 정보가 새어 나가, 동종 업계 간 경쟁이 불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얼마의 수익금을 받았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 문과대 학생회 관계자도 “제

휴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이나 지원 품목은 업체와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완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캠 중감위 설립 논의 이어져 “제휴수익금 관련 규정화 필요”

결국 제휴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세칙을 제정해, 학생회가 벌어들인 수익을 구분 없이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문과대 학생회의 경우 관례적으로 제휴를 맺기 전 문과대학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여, 만약 안전이 부결될 시 문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업체와 제휴를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지원금액이나 지원품목은 완전공개를 하지 않지만, 학기 초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생회비 계좌의 결산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

문과대학 관계자는 “해당 결산을 통해 제휴 수익금에 관한 부분을 대표자 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의 성사 공고를 통해 일반 학우들에게도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중감위는 제휴 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결산 제도와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제캠 총학생회 박병준(국제학 2017) 회장은 “제휴 수익금은 업체와의 계약상 공개 결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산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감사위를 신설하는 것이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총학생회와 중감위는 자치회비 이외 단과대학 학생회비 결산을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라 말했다.

경희대학교 학보사

대학주보

제74기

신입기자 모집

지원자격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 2학년)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모집부문

취재기자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미디어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자, 톨 활용 여부

지원방법

경희대학교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내 지원서 작성
(<https://media.khu.ac.kr/>)

*팝업 허용 시, 지원서 링크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집일정

서류: 9월 8일 ~ 9월 19일
면접: 9월 22일 ~ 9월 24일

*정확한 일정은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활동혜택

장학 선발 기회
활동 증명서 발급
기자 개인 명함 지급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문의

하시언 편집장 (010-4415-0622)
인스타그램 | @khunews_jubo
메일 | khunews@khu.ac.kr

